

지역 소식통

김제통합관제센터 현장교육 실시

김제시 통합관제센터는 최근 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CCTV 설치장소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및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2개조로 나누어 관내 주요 CCTV 현장을 방문하여 카메라의 설치 위치에 대한 지리적 특성 등을 숙지하고 상황발생 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은 "특히 이번교육은 지난 전북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가상 범죄 CCTV 추적 훈련 평가에서 김제시가 우수상이 결정된 후 실시되어 더욱 큰 의미가 되었으며, 관제센터가 날로 기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방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전라북도과 김제시는 10일 이진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정호영, 강병진 전라북도 도의원, 김제시 의회 나병문 의장 등 시의원들과 공사 관계자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하천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공사는 2011년 6월 착공하여 총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하천 2.8km 구간 내 하폭확장 및 축제정비, 친환경 여울 및 낙차보, 교량 3개소와 목교 5개소, 인공폭포와 비타분수 설치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준공으로 홍수에 안전하고, 금산천 상류에 위치한 금산사와 연계하여 시민과 내방객들이 방문하는 문화와 레저가 가능한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향상이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현미와 만나는 재즈의 향연

이름다운 여름밤,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주현미와 만나는 재즈의 향연이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비 내리는 영동교와 신사동 그 사람 등으로 잘 알려진 트로트 가수 주현미, 1989년 국내 유일 정통 재즈 빅밴드를 결성한 한국 재즈계의 대부 신관용 밴드와 하사와 병장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경우가 출연한다.

그 시대의 명곡을 추억하고 재즈의 고급스러운 선율과 대중적인 재즈곡으로 재미있고 편하게 K재즈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주고 재즈 마니아를 위한 재즈 베스트곡도 선곡하여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 시릴 무대가 꾸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이전기업 적극 지원할 것”

박성일 완주군수, 테크노밸리 이전기업 방문… 기업체 근로자·관계자 격려

박성일 완주군수가 이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0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이전기업을 방문, 시설 견학하고 기업체 근로자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군수는 붕동을 장구리에 위치한 자동차엔진용 부품 생산업체인 (유)두리(대표 김중철)와 과학기자재 및 특장차부품 등 생산업체인 (주)SM&TECH(대표 이중수)를 방문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두리와 (주)SM&TECH는 각각 경기도 평택, 대전광역시에서 이전에 온 기업이다. (유)두리는 자동차엔진용 부품을 납

품하는 제조업체로 올해 4월 공장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매출액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SM&TECH는 펠릿난로, 흡연부스, 환경측정장비, 연기감지장치 등을 설계, 제작, 조립해 납품하는 제조업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연간 매출액 70억을 목표로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중철 (유)두리 대표는 “기업집적도, 물류 여건 등 산업인프라 구축은 물론 완주군 내 산업단지의 대외적 인지도 등 모든 면에서 완주군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기도 평택에서 완주로 이전해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완주군의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테크노 산단에 300억을 투자해 완주군민을 40명가량 고용했다”며 “완주군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는 기업의 성장에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기업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공무원노조 ‘김제시장은 양치기다!’

인사행정에 “반칙·특권만 통해” 강력 반발

그동안 인사와 관련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취해 왔던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남기)이 10일 오전 ‘김제시장은 양치기다!’는 성명을 내고 이진식 김제시장의 민선 11년 동안 인사 행정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 주었듯이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은 없고 반칙과 특권만 통했다고 비판하며 합리적 인사를 촉구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에 따르

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김제시 인사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루어져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민을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조직은 생명력을 잃고 무신경이가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의 인사권은 시민들이 추구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집행하라 위임한 것이지 인사 전횡을 하라

고 위임하지 않았고 김제시는 시장의 사조직이 아닌 9만 시민을 위한 조직이다며 인사 정보를 독점하고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개별 이익을 위한 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인사 운영에 강력히 비판했다.

윤남기 위원장은 “김제시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김제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감시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막바지 작업 ‘박차’

완주군이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완주군은 소양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가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는 78억 예산을 투입, 황윤리 872-1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대지면적 9,218㎡)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새한건설에 공사를 발주해 지난 3월28일 착공했다.

육상태양광 발전설비 및 빗물이용시

설 등을 갖춘 친환경적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오는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에는 기계실, 창고가 지상 1층은 면사무소 대강당, 북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2층에는 주민자치위원회실, 종대본부, 평생학습실, 취미교실이 3층에는 다목적운동실,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된다.

군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가 계획대로 신속되면 소양면 주민(2016년 4월 말 기준 6,445명, 2,972세대)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화와 복지공간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1988년 준공된 현 소양면 사무소는 시설이 노후 되고 면적이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구심적 역할을 위한 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건설과 토목담당 직원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00만원 쾌척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10일 김제시 건설과 토목담당 직원일동이 “미래 김제를 이끌어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장학기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건설과 토목담당 직원들은 7월 청원조회에서 예산절감 및 김제육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확보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 현안유공 인센티브를 받아 김제 공직자로서 지역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끝나무를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 필요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 사회단체, 기업등의 소중한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강식 건설과장은 “김제시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싶다.”고 기탁 배경을 밝히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김제지역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95억 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평선 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뮤지컬 ‘루나틱, 20일 완주문화예술회관서 공연

완주군이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루나틱’ 공연을 연다.

10일 완주군은 완주문화예술회관 7월 우수공연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뮤지컬 루나틱’을 오는 20일 오후 2시와 7시 2차례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8년 준공된 현 소양면 사무소는 시설이 노후 되고 면적이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구심적 역할을 위한 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음악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현대인은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귀담겨주는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이 아픈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음악으로 따뜻한 울림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람들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공연에서는 적절한 유머와 라이브 공연의 현장감을 더해 사람들의 가슴에 폭풍감동을 안겨 줄 예정이다.

공연장에서 울리는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등 눈앞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밴드의 환상적인 연주는 일반 공연장에 접하기 힘든 라이브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적 소외계층과도 함께한다.

교통, 사회적 약자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연합회, 사회시설 및 각 읍면의 소외계층을 초청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